www.tphtoyota.com
SMART EVOLUTION
스마트의 진화, 스타일의 완성
2016 ALL NEW RAV4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37호 1판 (음력 10월 29일)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저커버그처럼…" 출산 등 기념 기부 확산

〈딸 출산 기념 52조 기부 페이스북 창업자〉

'2015 겨울愛' 훈훈한 나눔

천주교 광주대교구 생일·취업·결혼·회갑 등 생애 주기별 기부 운동 '나눔의 첫걸음' 참여자 100번째 주인공 탄생

승우(남·생후 48일)는 9일 생일, 돌, 출산 등 가족 기념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생애주기별 기부 '나눔의 첫걸음' 100번째 주인공이 됐다. 승우의 외할머니 정덕순(왼쪽부터)씨, 어머니 이선영씨,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기원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장 신부가 곤히 잠들어 있는 승우를 바라보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승우는 지난달 20일 생애 첫 기부를 했다. 태어난 지 29일 만에 기부를 한 승우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의 생애주기별 기부인 '나눔의 첫걸음' 100번째 주인공이 됐다.

승우의 아버지 김병수(39)씨와 어머니 이선영(38)씨는 첫째 출산 이후 5년 만인 지난 10월23일 둘째 아들 승우를 낳았다. 그토록 바라던 둘째 승우는 병수·선영씨 부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다. 부부는 승우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부부는 우연히 '나눔의 첫걸음'을 알게 되면서 승우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난치병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다. 승우가 커 나가면서 항상 가슴 속에 따뜻함을 지니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다.

9일 오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나눔의 첫걸음' 100호 기념식이 열렸다. 김희중 광주대교구장은 "오늘 일을 계기로 승우가 앞으로도 더욱 선한 마음을 갖고 성장했으면 한다"는 축복과 함께 승우에게 수면 인형을 선물했다.

곤히 잠든 승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승우는 나중에 '의미 있는 일에 동참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병수·선영씨 부부의 희망이기도 하다.

최근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딸을 출산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의 99%, 우리 돈으로 52조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딸 출산의 기쁨을 기부로 함께 나눈 것이다.

국내에서도 저커버그와 같이 가족의 기념일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기부 '나눔의 첫걸음'에 동참한 이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102명이다. 지난 2013년 10월 첫발을 뗀 '나눔의 첫걸음'은 지난해 12월 49호 기부자가 탄생했고,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50·51·52호 기부자가 연달아 나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나눔의 첫걸음'은 돌, 생일, 승진, 장학금, 취업, 개업, 결혼, 회갑 등 의미 있는 날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운동이다.

유형별로는 첫돌 기념 기부가 가장 많았고 생일, 결혼, 취업, 장학금 순으로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사순절에는 광주교도소 재소자들이 '나눔의 첫걸음'에 동참했고, 지난 9월에는 60대 남성이 모친의 조의금 일부를 기부했다.

최근에는 1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재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딸 지현(2)이의 돌을 맞아 돌잔치를 하는 대신 100만원을 기부했던 마주리(35)씨는 올해 지현이의 생일에도 같은 금액을 나눔의 첫걸음에 기탁했다.

전현규·이미진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3형제 성현(7)·영재(4)·우진(2)이의 생일 때마다 아이들 이름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나눔의 첫걸음'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미혼모자 생활비로 지원된다"며 "금액보다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4년 전 대구서도 5·18 수업 했다 ▶6면

KIA 윤석민 선발 담금질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한·중 FTA 20일 발효… 전남 농수축산업 타격

한·뉴질랜드 FTA도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한국-뉴질랜드 FTA도 같은날 공식 발효돼 양국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는 전남도내 농수산물 및 영세제조업, 한·뉴 FTA는 축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역 내 우려도 높다. 〈관련기사 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文사퇴·安 잔류 해법은 비대위?

새정치 파국 막을 대책으로 급부상 … 文 결단이 변수

새정치민주연합 내 내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안철수 전 대표의 잔류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문 대표가 9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로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당의 공식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신이며 민주주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어 사퇴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현재 당내에서는 탈당과 분당 사태를 피하려면 문 대표가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안 전 대표의 결단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당내 그룹별, 계파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애초 이날 오전 대규모 회동을 계획했다 취소했지만 조정식·김상희·김현미·민병두·오영식·우원식 의원 등 10명이 국회에서 모임을 했다. 이들은 이르면 10일 수도권 전체의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안(문재인·안철수) 양측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이뤄져선 안 되고, 현 지도부 체제만으로 총선을 치르기 부족한 만큼 문 대표 등 지도부 사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원혜영·박영선·박지원·전병헌 의원 등 전직 원내대표들의 조찬회동 자리에서도 문 대표 사퇴 여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안(친안철수)·친박(친박원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소장 개혁파 원외 인사들도 이날 별도 모임을 결성, 문·안의 '화해'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청렴도 16위 '최하위권'

광주시 11위…특단 대책 시급
교육청, 광주 3위·전남 10위

전남도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3단계나 하락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광주시는 소폭 상승했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관련기사 2면〉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7.16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 총 5등급 중 3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한 단계 올라섰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와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다.

광주시의 올해 외부청렴도(7.40점)는 10위(3등급), 내부청렴도(7.94점)는 13위(3등급), 정책고객평가(6.27점)는 13위(3등급)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6.89점으로, 지난해보다 3단계 내려앉은 16위(4등급)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도의 올해 외부청렴도(7.06점)는 15위(4등급), 내부청렴도(7.57점)는 16위(4등급), 정책고객평가(6.41점)는 8위(2등급)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63점으로 3위(2등급), 전남도교육청은 7.30점으로 10위(3등급)였다.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여수시(8.11점), 광양시(8.06점), 순천시(7.81점)가 2등급, 나주시(7.18점) 4등급, 목포시(6.88점) 5등급으로 최하위였다.

전국 군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함평군(8.08점), 화순군(7.94점), 곡성군(7.89점), 장성군(7.82점), 진도군(7.80점), 해남군(7.77점) 등이 1등급을 받았고, 완도군(7.00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구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광주 동구가 8.41점으로 1위(1등급) 그리고 북구(8.10점) 2등급, 서구(7.78점) 4등급, 남구(7.50점)와 광산구(7.23점)는 각 5등급을 받았다.

/최권일·윤현석기자chadol@